

‘가정의 달’ 신문 기사에 나타난 가족가치관 연구

A Study of Family Values on Newspaper Articles in May as ‘Family Month’

김민지(Minjee Kim)¹, 전미경(Mikyung Jun)^{2*}

¹Dep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endencies of transition of family values in newspapers which were published in May. The study was conducted on content analysis of Chosun and Donga daily newspapers in odd dates of May from 1970 to 2014. Based on preceding research, family values were classified into sub areas such as ‘Value of Family,’ ‘Value of Marriage,’ ‘Value of Children,’ ‘Value of Filial Piety’ and ‘Value of Sex Role.’ The collected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five sub areas. This study collected 288 articles considering overlap count. According to the study, the newspapers seem to be interested in ‘Value of Family’ and ‘Value of Children,’ but not ‘Value of Marriage.’ And academic, social, political efforts to improve family life or raise a necessity to change family values can evoke mass media’s interest about family values. Meanwhile, some newspaper articles appear to support an opinion that ‘The Healthy Families Act’ postulates a claim like ‘the traditional family is a normal family.’ It seems that newspapers misunderstood about ‘The Healthy Families Act.’ So we should judge what is more right between two opinions because mass media can reconstruct reality. The tendency of transition of family values is actually slight or the tendency of family values in newspapers cannot show actual family values. Moreover, we have to reconsider that highlighting just ‘paternity’ can make men overlook other roles in the household like caring for children or cleaning.

▲주제어(Key words): 가족가치관(Family values), 가정의 달(Family month), 가족 관련 기념일(Family-related anniversaries), 신문 기사(Newspaper article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I. 서론

한국 사회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를 거치며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를 이룩하는 기본단위인 가족 역시 변화한다. 또한 가족의 다양한 변화 양상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가치관이 가족의 행동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신념체계라는 점에서 가족의 생활은 가족가치관과 영향을 주고받고, 사회의 변화는 연쇄적으로 가족의 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가족가치관이 변화하였고 또 변화하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가족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성역할과 관련된 가족가치관과 가족생활의 양상을 들 수 있다. 2014년 Statistics Korea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남녀의 성역할에 64.3%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찬성한 이는 응답률은 35.7%에 불과하였다. 선행연구(J. Lee, 2006; S. Won, 2014; M. Yang, 1996)에서도 이분화된 성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mkjun@dongguk.edu

역할관이 타파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족가치관과 달리 2014년 Statistics Korea의 동일한 조사결과, 여성이 하루 평균 3시간 28분을 가사노동을 하며 보내는 반면 남성은 평균 47분만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유급 노동시간(1일 평균 4시간 45분)이 여성(2시간 44분)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남녀 가사노동의 시간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념적 가족가치관과 실제 가족생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관념적 가족가치관과 실제 가족생활의 불일치는 가족가치관이 개인 내적인 신념체계이면서 사회의 영향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활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가진 사회 전체의 가족가치관을 뒤엎고 독자적으로 가족가치관을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개인 내적으로 형성되는 가족가치관은 사회 전반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식되는 가족가치관과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개인의 가족가치관은 수많은 사회적 힘에 의해 좌우된다(G. Kim, 1995).

따라서 실제 가족생활을 형성하는 가족가치관은 사회에 드러나는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생활시간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실상과 관념적 가족가치관 간의 괴리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족가치관은 과연 어떠한가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가치관은 정치적 태도나 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가치관에 비해 비교적 급속하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K. Eun, 2006) 사회 변화 및 가족의 변화에 비해 가족가치관 변화가 지체되어 있다는 논의가 종종 제기된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 및 가족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다(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993; Research of Women and Korean Society, 1995)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가치관을 여러 하위범주로 나누어 연구한 선행연구(K. Eun, 2006; K. Kim, 1998a; J. Lee, 2006; S. Lee et al., 2005; S. Park, Y. Yang, & S. Ahn, 1997)에 따르면, 가족가치관의 하위범주에 따라 변화 속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구들의 논의는 일관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가치관 변화에 대한 상이한 연구들로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어떠한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주목할 때, 사회에 주요하게 나타난 가족가치관이 어떠한지, 또한 사회 및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족가치관

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가족가치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과는 달리, 가족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 자체는 많지만 사회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중매체가 사회적 지식을 제공·선택하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하는(S. Nam, 2005) 사회상 전달 매체라는 점에서,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신문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은 사회의식의 표현수단으로 현실성, 공식성, 정기성, 기록성, 보존성의 특성을 가지고, 대중매체로서 영향력이 크고,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며, 보다 접근이 쉽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며, 수용자 입장에서 보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 Shin, 2006). 보도 내용에 따라 의식과 가치관, 생활습관이 변화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며,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언론의 도구(I. Kim, 2008)라고도 여겨지는 신문을 통해 사회가 인정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이 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매체가 수많은 사회적 이슈 가운데 가족가치관을 선정하여 전달하려면 가족이 중요한 이슈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가장 부각되는 때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 있다. 5월에는 다양한 가족 관련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는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Presidential Decree No.25751, 2014.11.19.)에서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념일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에 가족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대중매체는 특히 5월, 가족 관련 기념일에 가족과 관련한 사안을 보다 많이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러한 가족가치관은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떠한 경향으로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양상 및 가치를 선정하여 전달하는 사회상 전달수단인 신문을 분석하여 가족가치관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 주도로 가족에 초점을 두는 5월 가정의 달을 분석범위로 삼음으로써, 5월에 제정되어 있는 가족 관련 기념일을 포함한 5월에 발간되는 신문에서 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전반적 양상 및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 하위범주(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효 가치관, 성역할관)의 양상 및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가치관 관련 선행연구 고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최근의 연구와 같이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기도는 과거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가(家)’의 개념으로 형성된 유교적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았다(J. Choi, 1964; S. Shin, 1998). 최근에 올수록 부모 세대의 경우 자녀에게 노후의 보살핌을 기대하여 노후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자녀 세대의 경우 결혼 후 반드시 부모와 동거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유교적 형식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효 관념 혹은 가문 유지에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S. Ok, 1975) 과거의 가족가치가 똑같은 양상으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가치는 변화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연구한 기존연구 중에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가 많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어 온 것은 세대이다. 세대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연령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대상을 다양한 세대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와 젊은 세대의 가족가치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신세대와 구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세대를 20~30년 간격으로 나누어 노년세대, 중년세대, 청소년세대, 사회변동에 따라 산업화세대, 베이비붐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등 다양하게 구분하였다(H. Kim, 2005; K. Kim, 1998a; K. Kim, 1998b; M. Kim & S. Ahn, 1996).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가족가치관이 신·구세대 사이에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세대간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족가치관의 하위범주에 따른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로 올수록

기성세대와 가족가치관의 차이가 커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본 연구들과 달리, 젊은 세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족가치관 특성을 규명하여 변화를 예측한 연구들도 많다. S. Han(1996)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을 연구하였는데, 합리적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면서 본인이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며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둘만 낳아 기르려는 태도로 변하는 등 개인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족과 부모님의 영향이 약화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효나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유교적 가족 중심의 가족가치가 나타나고 있었다. 보다 최근에 J. Lee(2006)는 청소년들의 가족가치관을 분석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전체적인 가족가치관 변화를 보았을 때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띠었다. S. Han(1996)의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핵가족화 된 혈연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결혼관에 있어서도 이혼과 재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유교적 가족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반면, 노부모 부양이나 성역할관에 있어서 보다 근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10년 사이에도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연구들은 세대뿐만 아니라 성에 따라서도 가족가치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많은 가족가치관 선행연구(M. Cho & S. Oh, 1999; M. Chung & Y. Chang, 2007; K. Eun, 2006; S. Han, 1996; I. Kim & M. Kim, 1989; K. Kim, 1998a; K. Kim, 1998b; E. Lee, 1999; J. Lee, 2006; S. Lee, 2014; S. Ok, M. Sung, & K. Shin, 2000; S. You, J. Sung, & T. Kim, 2006)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훨씬 근대적이며 개방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세대별 가족가치관의 연구는 가족가치관의 하위범주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성별 가족가치관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고 뚜렷한 방향으로 나타나 성이 강력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성 외에도 거주지역, 교육연수, 생활수준이나 가족형태 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다양한 요인을 변수로 두고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연구한 D. Lee(1987)는 성 외에 결혼연수, 교육연수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역의 영향을 연구한 S. Ok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의 가족가치관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가족가치관에 비해 근대적

으로 나타났다. S. You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 외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가족가치를 가져 D. Lee(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뿐만 아니라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사무직 업무를 할 경우,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인 경우, 일반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가 보다 개방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다고 하여 종교, 직업, 가족형태와 더불어 거주하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생활수준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많은 연구를 통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확인된다.

한편 하위범주별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가족가치관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와 문헌들이 가족가치관을 세분한 하위범주는 다양하다. S. Hong(1971)은 결혼관, 가문관, 자부관, 궁합관, 자녀교육관, 효도관, 제사관, 형제관으로 범주화하였고, 이후 J. Choi(1982)는 가(家)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S. Ok(1989)은 배우자 선택, 결혼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세분하였으며(as cited in J. Kim, 2012), 같은 해 J. Park(1984)이 가(家)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으로 범주화하였다. 1990년도에 들어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K. Kim(1998a)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범주화하였으며, M. Cho and S. Oh(1999)는 결혼관, 성역할관, 부모관, 자녀관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연구 중 S. Lee et al.(2005)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성평등 및 역할관으로, N. Kim et al.(2010)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부모관/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T. Kim, J. Yu and H. Kim(2012)은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성역할관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을 여러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하였듯 가족가치관은 세대, 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근대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가치관 전반적으로 볼 때 변화가 나타남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가족가치관 하위범주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정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가족가치관의 하위개념 중에서 가족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S. Shin(1998)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인 가족주의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당대 가족가치를 보여준다. 가족중심주의에 집중하여 가족관의 의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한 S. Suh(2003)의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생명이자 도덕적 단위,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위로 취급되었

고, 그것은 산업화 등 사회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는데 다만 원래의 의미에서 변형되어 이기적인 성향을 띠는 가족주의가 되었다고 하였다. S. Lee(2014)의 연구에서도 한국 가족의 세대관계가 개인보다 가족이 중심이 되는 가족주의의 가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도 가족이 사회의 중심이라는 근본 개념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S. Park et al.(1997)은 대학생의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 연구를 통해 동거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태도가 있으나,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개방되어 있음을 밝혀 결혼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J. Lee(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이혼, 동거,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가치를 보이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과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가치관 중에서 결혼과 동거, 자녀 출산의 결혼 전제에 대한 태도를 꼽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한 K. Eun(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관의 변화가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동거에 대한 태도와 자녀 출산에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의 필요성이나 동거, 이혼, 재혼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거나 동거, 이혼, 재혼 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가 비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결혼과 관련한 가족가치에 보다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S. Kang, D. Kim, K. Oh, E. Lee, and C. Jung(1991)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강조되던 자녀를 향한 희생, 봉사, 헌신적 모성애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에는 이러한 자녀관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M. Jung and Y. Jang(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거나 하는 가족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서 예측하였던 것과 같이 모성애의 약화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이전의 자녀관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자녀관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J. Chang(2005), H. Kim and T. Kim(2008), T. Kim(2005)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자

녀관 관련 연구는 이처럼 자녀 출산의 선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T. Kim et al.(2012)의 초·중·고등학교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대한 연구와 같이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가 맞물려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M. Kim and S. Ahn(1996)는 35세 이하의 신세대와 40세에서 55세 사이의 중년기세대의 효도관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신세대보다 중년기세대의 효도관이 더 강하며, 신세대의 경우가 ‘형편에 맞는 효’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도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D. Song(2004)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여성인 경우와 함께 젊은 세대일수록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 Kim, C. Park and K. Nakajima(2010)의 연구결과,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모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반면 자식세대인 대학생들의 경우 시설과 정부, 가족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부양의식, 효 가치관의 경우 세대 변화에 따라 탈유교적인 가족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가족가치관의 변화 경향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역할 가치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부장적인 이분화가 약화되고 있었다. J. Lee(2006), M. Yang(1996) 등의 성역할관 변화 연구에서 가사노동의 책임은 남녀 공동에게 있다는 의식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존재해, 과거의 이분법적 성역할가치에서의 탈피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S. Won(2014)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듯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이분화의 완화와는 달리, 여성의 자녀양육 역할과 남성의 가족 부양 역할이 건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가장 분명한데, 이분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은 자녀양육이나 경제적 부양의 영역보다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효 가치관과 자녀관의 경우도 유교적인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는 양상이 뚜렷한 편이었다. 반면 가족중심주의와 같은 가족관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관 역시 그 변화가 명확하지 못하고 과도기적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범위

이 연구에서는 구독률, 논조의 유사성, 자료에의 접근성과 자료 수집의 용이성이라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Chosun daily newspaper와 Donga daily newspaper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매체를 접하고 지식을 전달받는지 그 지표가 되는 구독률을 최우선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하나의 대상을 연구하는 데 상반되는 논조를 통해 분석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연구 등에 적합하지만 기사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은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인식이므로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중요하지 않고,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반되는 논조에서의 접근은 오히려 분석의 정확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논조의 유사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아무리 의미 있는 연구 자료라 할지라도 연구자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연구를 수행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 연구는 반세기 가까운 과거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마지막으로 자료에의 접근성과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Chosun daily newspaper와 Donga daily newspaper에서 발간한 기사 중 1970년부터 2014년 사이의 짝수년도 23개년의 5월 홀수일 및 가족 관련 기념일을 연구의 분석범위로 삼았다. 분석범위의 시작시점은 5월 ‘가정의 달’의 최초의 기념일인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해인 1970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가 시작된 2015년 초반에 수집할 수 있는 기사가 2014년도 5월에 발행된 기사까지이므로 종료시점은 2014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초로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해가 짝수년도이므로 그 변화를 포함하기 위해 짝수년도를 분석하였고, 5월의 가족 관련 기념일은 날짜가 해마다 다른 성년의 날을 제외하고 모두 홀수일이기 때문에 5월 중 홀수일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되, 짝수일인 성년의 날의 기사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부터 2014년 사이의 짝수년도 5월에 Chosun daily newspaper에서 발간한 630일의 신문 중 359일치 신문 기사와 Donga daily newspaper에서 발간한 622일의 신문 중 359일치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총 718일치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2. 분석범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여(J. Choi, 1982; M. Cho & S. Oh, 1999; S. Hong, 1971; K. Kim, 1998a; N. Kim et al., 2010; T. Kim et al., 2012; S. Lee et al., 2005; S. Ok, 1989, as cited in J. Kim,

2012; J. Park, 1984) 가족가치관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효 가치관, 성역할관의 다섯 가지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각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은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주의, 현대적·근대적 가족주의, 가족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 혈연중심주의, 자녀중심주의, 부부중심주의 등의 가족주의, 가족의 경제, 교육, 자녀 양육 및 사회화, 사회 안정화, 재생산, 휴식, 보호, 돌봄, 오락 등의 가족기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분거가족, 동성애가족 등의 가족구조 및 가족형태와 관련한 가치관 전반을 포함하였다.

둘째, 결혼관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 부부관계 유지에의 기대, 재혼에 대한 인식, 결혼식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결혼과 관련한 가치관 전반을 포함하였다. 이때 다문화가족과 재혼가족에 대해 가족구조 및 형태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기사는 가족관에 포함시켰다. 이와 달리 국제결혼이나 재혼을 '선택'하는 가치에 중점을 둔 기사는 결혼관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자녀관은 자녀 보호 방식, 자녀에 대한 기대 표현 방식, 자녀에의 사랑 표현 방식, 자녀 지지 방식, 자녀 교육 방식 등 자녀 양육태도와 자녀 출산 및 입양의 선택과 관련한 가치관 전반을 포함하였다. 이때 자녀 교육 가치에는 구체적인 학업교육, 진로교육, 육아방법 등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의 성품을 위해 부모가 취해야 하는 양육방식이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입양의 선택과 관련한 가치관은 가족관의 입양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구분하였다. 입양을 바라볼 때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가족관에 포함하였다. 이와 달리 자녀 양육태도의 관점에서 비(非)혈육인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언급할 경우는 자녀관에 포함하였다. 한편 아동의 권리보장이나 사회에서 아동의 위치, 아동의 생활 변화 등 가족 지위로서의 '자녀'가 아닌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아동'을 다루는 기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넷째, 효 가치관은 친부모, 시부모, 처가부모 등 가치관의 적용대상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공경, 부양, 봉양 등 효도 의식과 구체적 효도 방식과 관련한 가치관 전반을 다루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다섯째, 성역할관은 도구적 역할로서의 아버지와 표현적 역할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기대, 이분화된 성역할 분담, 평등적 성역할 분담, 모성이데올로기 등 가족 안에서 부부의 성별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과 관련한 가치관 전반을 포함하였다. 이때 성역할관은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가족 밖의 사회에서 부여하는 성역할 기대 가치관은 포함하지 않았다. 즉 여성학적 관점,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남녀를 바라보는 가치관은 제외하였다. 또한 모성이데올로기는 자녀관과 구분하였다.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가치가 드러나는 모성이데올로기의 경우는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성역할관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달리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나 가치의 경우는 자녀관에만 분류하였다. 또한 남성의 아버지로서의 태도에 관해서도 성역할관과 자녀관을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남성의 가족 내 성역할관으로 분류하고, 자녀 양육의 태도는 자녀관에 포함시켰다.

각 하위범주에는 가족가치관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당대의 가족가치와 관련된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사 역시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효 가치관 변화로 발생하는 노인 부양 문제나 혈연중심주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입양가족 실태 등을 의미한다. 이때 가족가치와 관련 없이 단순히 계층 혹은 집단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한편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가족에게 책임 지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기사도 포함하였다.

3. 분석절차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신문에서 가족가치관과 관련한 기사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가족가치관 관련 키워드를 선정한 뒤 분석범위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 전체를 읽고 키워드가 나타나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였을 때 유추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보다 타당한 기사 수집을 위해 제목보다 내용이 가족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사를 추려 수집하고자 하였다.

키워드가 포함되면서 가족가치관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사실, 논평, 독자의견 등의 기사가 포함되며,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수상, 표창, 현실 비판 기사는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족가치를 유추 가능하게 하므로 포함하였다. 또한 개별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도 포함하였다. 개인 혹은 개별가족의 일화는 하나의 단적인 예로, 그와 같은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기삿거리 중에서 그 일화를 기사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족가치관을 직접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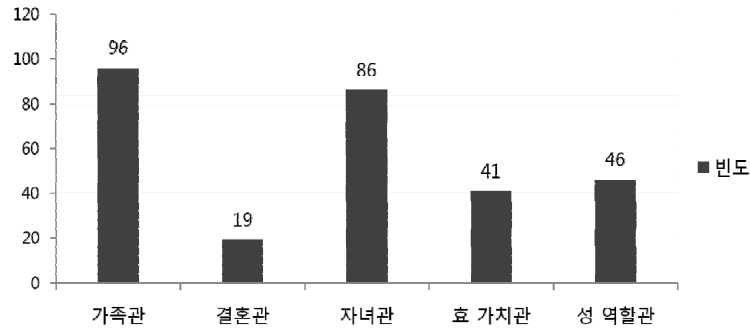


Figure 1. Frequency analysis of family values related articles by sub areas

드러내거나 유추하게 하지는 않지만, 가족 관련 실태를 나타내거나 가족 관련 사회 및 제도적 개혁을 촉구하는 기사도 보다 풍부한 분석과 논의를 위하여 포함하였다.

반면 키워드가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해외토픽, 홍보기사, 단순한 사건·사고 기사, 정보제공(단신, 통계, 건강, 서적, 소비실태, 행사 등)기사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집한 결과, 수집된 기사는 275건이다.

둘째, 수집한 기사를 앞서 정의한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효 가치관, 성역할관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기사를 두 개 이상의 하위범주에 중복시켜 분류하기도 하였다. 중복 분류한 경우는 하나의 기사 안에 여러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가치관이 유사한 비율로 다뤄지는 경우이다. 유사한 비율이라 함은 기사의 줄(line)을 기준으로 하위범주별 점유율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복 분류하였을 때 총 기사는 275건에서 288건으로 상향 집계되었다.

셋째, 객관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집한 기사의 일부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일치도 분석을 하였다. L. L. Kaid and A. J. Wadsworth(1989)는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분석에서 적절한 표본크기를 모집단의 5~7%로 제안하였다(as cited in D. Riffe, S. Lacy & F. Fico, 2001). 이에 따라 수집한 전체 기사의 7%, 그 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20개 기사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분석원은 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생이다. 분석 전에 이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고, 분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 및 연도별로 기사의 빈도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 내용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가치관의 전반적 양상 및 변화 양상

이 연구에서 연구방법에 따라 Chosun daily newspaper와 Donga daily newspaper의 ‘가정의 달’ 신문 기사를 수집한 결과, 전체 수집된 기사의 빈도는 275건이다. 이를 중복 분류하였을 때 기사의 빈도는 288건으로 집계된다.

총 288건의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를 빈도분석한 결과, 가족관(96건, 33.3%), 자녀관(86건, 29.9%), 성역할관(46건, 16.0%), 효 가치관(41건, 14.2%), 결혼관(19건, 6.6%)순으로 자주 나타났다(<Figure 1> 참조). 가족관과 자녀관의 점유율을 합하면 63.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의 연도별 빈도분석 결과 1994년, 2004년, 2006년에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이들 연도에는 각각 가족과 관련한 사안들이 등장하여, 각 사안들이 가족에 대한 신문의 관심을 높인 것으로 예측된다. 빈도가 가장 높은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가족학계를 넘어 사회 전체 학문에 있어서 커다란 이슈였으므로 신문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4년은 UN이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로 지정한 연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세계 가정의 날’을 제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는 저출산이 사회의 문제로 여겨질 만큼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국제결

1) 예를 들어 100줄짜리 기사에서 50줄이 성역할관 관련 내용을, 40줄은 가족관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 점유율이 성역할관 50%, 가족관 40%이므로 두 하위범주의 점유율 차이가 10%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성역할관과 가족관에 중복 분류된다. 이와 달리 100줄짜리 기사에서 성역할관 관련 내용이 50줄인데 가족관 관련 내용이 10줄일 경우, 점유율이 성역할관은 50%이지만 가족관은 10%이다. 이때에는 두 하위범주의 점유율 차이가 40%로 10%를 초과하므로 이 기사는 성역할관으로만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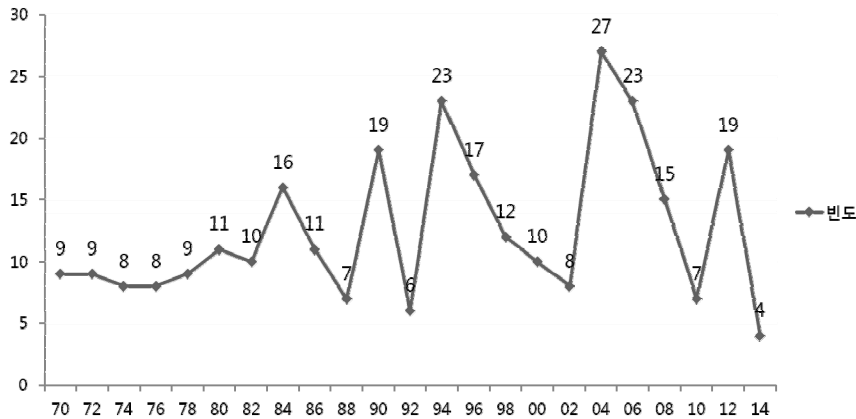


Figure 2. Frequency analysis of family values related articles by year

혼이 급증한 시기이다. Statistics Korea(2015)에 따르면 2000년 합계출산율이 1.47이었던 것이 3년만인 2003년에 1.18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1.08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결혼 혼인 건수도 2000년 11,605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8,751건으로 급증, 2005년에는 30,71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2006년의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의 빈도 상승은 저출산과 국제결혼 급증이라는 사회 현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에 새로운 사안이 등장하여 신문이 가족에 갖는 관심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2.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 양상 및 변화 양상

1)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 관련 기사 빈도의 양상 및 변화 양상

보다 자세한 가족가치관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해 수집한 기사 288건을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로 연도에 따라 빈도 분석하고, 기사의 내용에 따라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Figure 3>은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로 연도에 따라 빈도분석한 결과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가족관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 낮지 않은 빈도로 등장하였는데, 2004년도에 빈도가 급상승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년도에 3건 나타난 데 비해 10건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매우 컸다. 또한 2004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전보다 가족관의 빈도가 더 높았다. 2004년도 이전까지 빈도가 평균 이상인 비율은 29.4%에 불과한 반면 이후에 66.7%가 평균 이상의 빈도로 나타났다. 2004년이 가족관을 드러내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자녀관 역시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빈도가 3.74건으로 수치는 가족관보다 낮지만,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해가 있었던 가족관에 비해 자녀관이 좀 더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94년과 2006년에 자녀관은 9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결혼관의 평균 빈도는 0.83으로 1건에 미치지 못하며 가족가치관 하위범주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큰 변화 없이 0건에서 3건 사이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70년부터 현재까지 신문에서 결혼관에 대한 가족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를 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효 가치관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적지만 꾸준하게 나타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빈도가 이전보다 일정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 비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효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족관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전년 대비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정한 효 관련 가치가 드러난 것은 아니고 2004년 전과 후의 효 가치관 흐름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흐름일지라도 빈도가 급증한 것을 보아 이 시기에 효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역할관도 가족관이나 자녀관과 같이 전반적으로 꾸준한 빈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 1990년도에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이후의 빈도 평균이 2.4건으로 이전의 빈도 평균 1.5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관은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지만 특히 1990년대 이후 더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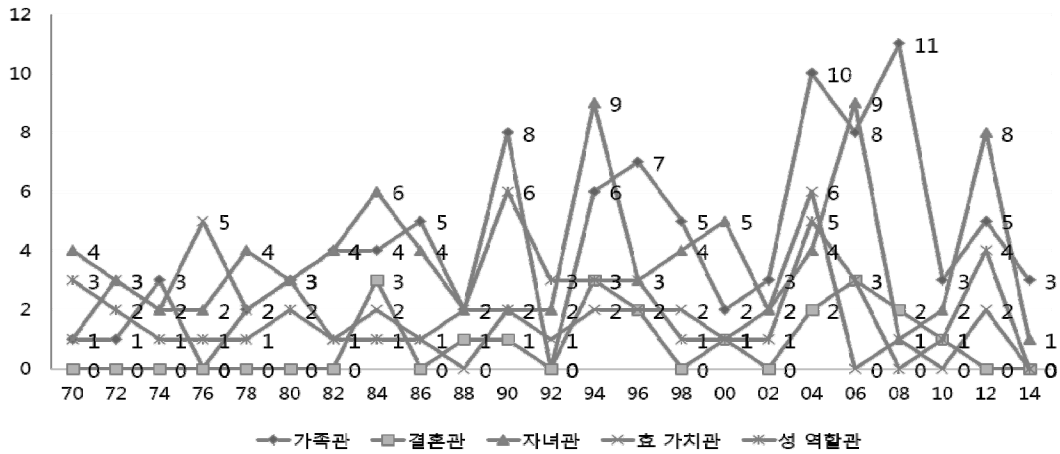


Figure 3. Frequency analysis of sub family values related articles by year

2)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 관련 기사 내용의 양상 및 변화 양상

(1) 가족관의 양상 및 변화 양상

가족관은 분석범위 초반인 1970년대에는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보인다. 1970년 5월 8일자 Donga daily newspaper의 <방중에 자식마저 버려>에서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함께 있어서 비로소 가치 이상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며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존재라는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가하면 결혼 후 18세에 사별하고 두 남매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원망보다는 숙명이라 생각하며 공사장 일까지 하며 이를 악물고 생업에 뛰어난 여성과 같이 유교적 가부장제를 내면화한 듯한 여성을 소개하는 기사도 있었다. 이처럼 1970년대에 신문에서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부합하는 가족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유교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족주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주의를 경계하는 기사가 발견된다. Donga daily newspaper의 한 기사(Donga daily newspaper, 1980.5.13.)에서는 “父權은 母權과의 연합에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의무를 다하면 권리는 저절로 수반되어 제 위치를 찾는다는 권리의식으로 족하다 할 것”이라며 아버지들이 지나치게 부권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모권과 부권이 연합하여 가족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이는 아버지의 가부장권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시어머니가 군림하고 며느리가 복종하던 과거의 고부 관계와는 달리,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사가 등장하였다(Donga daily newspaper, 1988.5.9.). 이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이해하

여야 한다는 가치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복종하던 유교적인 가족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의 정신을 살린 가정운리의 필요성을 가정의 달을 맞아 절감한다.”(Donga daily newspaper, 2004.5.10.)는 기사와 같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수평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가족운리를 형성하자는 가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점차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주의를 경계하고 새로운 가족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대가족제도를 지향하는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핵가족이 부수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빠져나올 것이 뻔하다”(Donga daily newspaper, 1974.5.11.)고 언급한 기사와 같이 대가족제도에의 지향 가치는 핵가족화를 경계, 비판하며 나타나고 있었다. 핵가족제도에 대한 경계와 대가족제도 지향은 가족중심주의 가치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에도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요즘 사회체제가 대가족제도를 바람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핵가족에서 빚어진 자녀문제 노인문제 부부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Chosun daily newspaper, 1982.5.1.)라고 본 기사 등에서 핵가족제도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노인 부양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라는 인식과 함께 가족중심주의적인 대가족제도로 회귀하자는 가족관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이혼은 자식이 생기기 전에는 간단할 수 있으나 자식을 낳은 후엔 할 수 없다”(Donga daily newspaper, 1970.5.8.)며 부부의 삶과 선택은 자녀를 고려하여 형성돼야 한다는 자녀중심 가족주의 가치관의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중심 가족주의 지향 가치는 이후 자주 등장하지 않아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또한 2000년

에 들어서는 “부부는 가정의 기본 단위이며, 부부 사랑은 가정 행복의 절대적 필요조건이다.”(Donga daily newspaper, 2006.5.19.)와 같이 가정의 화목은 부부 사랑이라는 가치로 연결시키는 부부중심 가족주의 가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부부의 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부부의 소중함과 참가치를 되돌아보면 좋겠다.”(Donga daily newspaper, 2006.5.19.)와 같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나타나는 기사가 대부분으로 부부중심 가족주의 역시 크게 강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자녀중심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부부중심 가족주의가 강조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에 올수록 자녀중심 가족주의보다 부부중심 가족주의가 더 자주 등장하여, 부부중심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개인의 내적 가치에도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친엄마이상 있겠느냐”(Donga daily newspaper, 1990.5.9.)는 기사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 혈연중심 가족주의가 나타났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혈연주의나 순혈주의에 대한 지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후 다양한 가족구조 및 가족형태에 대한 열린 태도가 나타났다. 아래 기사는 외국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가치를 외국인의 말을 인용해서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혈연중심 파괴’가 이혼 재혼의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가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지요. 독신이든 주부든 이혼자든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유대가 더 의미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Donga daily newspaper, 1996.5.19.)

다양한 가족구조를 받아들여려는 가치관은 2004년 이후에 보다 많이 나타난다. 2004년 이후 특히 입양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주의가 만들어 낸 ‘가족 환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혈통적 ‘정상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Donga daily newspaper, 2006.5.8.)고 언급한 기사와 같이 입양 및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보여주고,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여려는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는 기사가 다수 등장하였다. 여기서 가족관의 연도별 빈도분석 결과 2006년에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획기사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기사 <동남아 엄마의 아이들> 시리즈는 소개 기사 1건, 시리즈

5건으로 총 6건이었다. 즉 이 시기에 가족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음 기사와 같이 다양한 가족구조를 인정하자는 가족가치관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용어가 사회에 제안될 때 우리 사회는 순혈(純血)주의와 민족주의에 편향돼 있었다. …… 부부가 된다는 것도 기실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다. …… 우리 모두는 이미 다문화 가족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Chosun daily newspaper, 2014.5.17.)

한편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고, 사회적 행위의 여러 양상을 지우는 기본적 제도”(Chosun daily newspaper, 1996.5.11.)라고 하며 가족이 사회의 근간이며 가족의 화목이 사회의 화목으로 연결된다는 가족중심주의는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가족중심주의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물론,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라는 가치에 더불어 ‘화목’이나 ‘건강’의 중요성이 더해져 강화되어 전달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이후에는 가족의 역할,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위한 노력 촉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수순으로 자연히 가족이 형성되고, 형성된 가족은 가만히 있어도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며 화목해진다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이와 달리 2004년 이후에는 “‘가족이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이 정도 화풀이는 할 수 있는 거 아냐?’”하는 생각은 “착각”이라면서(Chosun daily newspaper, 2008.5.7.),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가치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가족주의 및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남녀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해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받들어야 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기며, 가문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아는 시집가면 문중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식 속에 가문을 잇는 역할은 남아에게 주어지므로 남아를 선호하고 장자를 우선시하며, 부모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의식으로 효 사상이 강조되며, 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조선시대 유교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교적·가부장적 가족가치관(J. Choi, 1964; G. Kim, 1995; J. Park, 1984; S. Shin, 1998)이 지배적이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변화되는 가족관에 대해 신문이 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가치관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문 기사는 “자녀가 책임 있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곳으로서 가정만큼 좋은

교육장소는 없다.”(Chosun daily newspaper, 1982.5.19.) 고 하는 등 가족기능 중에서 특히 자녀 양육이나 사회화 기능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가정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줄 수 있는 포근한 사랑의 안식처가 될 때에, 개인은 물론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Chosun daily newspaper, 1990.5.7.)와 같이 가족의 보호, 휴식, 재생산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가치는 “어린이들이 이기적이고 버릇없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Donga daily newspaper, 1990.5.9.)이라고 보는 등 사회 병리적 현상을 가족의 책임으로 부과하는 모습과 맥을 같이 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었다. 1994년 5월 7일자 Chosun daily newspaper <‘가족’을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이런 모든 현상을 언제까지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 이제 가족의 문제를 개별가족이나 개별가족 구성원의 제한된 문제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자는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가족기능을 강조하던 가치가 약화되며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개별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와 가족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제도적 개혁을 촉구하는 경향과 연결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의 실직이나 생활고에 따른 가정 파탄으로 졸지에 소년소녀가장이 된 아이들이 속출 ……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Donga daily newspaper, 1998.5.1.)와 같이 가족기능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사(Donga daily newspaper, 1998.5.1.)에서 “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도 하였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족이 직면한 당대 현실과 함께 가족기능을 강조하던 가치가 약화되고 가족문제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하려는 경향이 맞물려 등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기능에 대한 기사는 보호, 휴식, 재생산 기능과 특히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을 강조하다가 점차 강조 경향이 약화되었고, 이는 가족문제를 개별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혼관의 양상 및 변화 양상

결혼관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결혼 및 결

혼식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범위 초반에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은 유교적 양상을 띠었다. 1984년 5월 7일자 Donga daily newspaper의 <시집가는 慶事>에서는 결혼을 “누구나 치르기를 바라는 경사”이자 “인간사의 근본이 되는 경사”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인간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1일 Donga daily newspaper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는 책임이나 희생을 회피하는 형태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법적인 결혼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같은 전통적인 결혼관이 지속되다가 그 이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다만 결혼에 대한 회의에 대해 “책임은 지기 싫고 즐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혼인율이 낮은 현실과 이유를 언급한 기사(Chosun daily newspaper, 2008.5.21.)에서는 당대 미혼남녀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이전 세대만큼 중요시하는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렇게 결혼 선택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가치가 나타나는 기사는 이 기사 단 한 건뿐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200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결혼식 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식 문화에 대한 가치관은 대체로 “현행 결혼식 절차가 남녀평등의 가치관과 상충되게 신랑우위로 짜여져 있는데다 완전한 서구식도 전통식도 아닌 국적불명의 예식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에 맞는 결혼식 절차를 마련하자”(Donga daily newspaper, 1988.5.7.)는 등 유교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결혼식 문화를 비판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결혼식 문화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서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이해타산에 젖어 ‘한밑천 잡자’는 기대감으로 결혼에 임하는 한심스러운 풍조”(Donga daily newspaper, 1990.5.9.)라고 언급하였듯 물질주의, 이해타산의 결혼 가치로 인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의 의미를 화폐의 교환, 신분 상승의 수단에서 찾지 말고 두 사람이 삶의 행복을 성취하는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가치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2000년대에는 허례허식이 되고 있는 결혼식 자체를 비판하며 물질을 위한 결혼식 문화에서 벗어나자는 가치 경향도 보였다. 즉 현대로 올수록 결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지나치게 중시되는 사회상

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폐단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시대상황에 맞는 결혼식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듯 결혼관과 관련하여 결혼에 대한 가치는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고, 결혼의 선택 문제보다는 오히려 결혼식 문화에 대한 변화의 경향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받아들이며 상황에 맞는 결혼식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결혼 자체는 유교적 가치와 유사하게 결혼을 성스러운 인간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달'에 보도된 기사라는 제한이 있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이혼과 관련한 기사가 등장하였는데, 대체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일단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면 웬만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은 최악이라고 보는 유교적 결혼관을 알 수 있다.

이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은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결혼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던 인고문화는 현대인에게는 웃기는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결혼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그러했으면 하는 당위성이요 명분이며, 유지의 실속은 인내인 것"(Chosun daily newspaper, 2004.5.3.)이라고 표현한 기사와 같이 인내를 통해 결혼을 유지하고 이혼을 지양하자는 가치가 등장하는가 하면,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Chosun daily newspaper, 2004.5.17.)이라거나 "싸우고 물건을 부수더라도 같이 사는 게 백 번 낫다"(Chosun daily newspaper, 2006.5.11.)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결혼 유지를 강조하는 기사도 보인다.

"쿨한 이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Chosun daily newspaper, 2006.5.31.)과 같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은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지요."(Donga daily newspaper, 2008.5.21.)라는 기사와 같이 이혼을 지양하고 결혼을 유지하자는 결혼 유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재혼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대 중반에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모시는 것도 부담스러워 부모의 재혼을 권유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노인들에게도 건전한 이성교제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져야"(Donga daily newspaper, 1994.5.8.)한다면서 노인들의 재혼에 대해 호 가치관의 변화와 연결시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사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신문이 재혼을 긍정적으로 전달한다고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재혼이 보도 기사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족 관련 가치 중 재혼은 아직 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3) 자녀관의 양상 및 변화 양상

자녀관 관련 기사의 내용은 자녀 양육태도가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모가 무슨 일이다 거들어주고"(Chosun daily newspaper, 1970.5.5.) "어린 자녀들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Chosun daily newspaper, 1998.5.13.) 부모들의 과잉보호, 무분별한 사랑, 모든 것을 대신해주려는 양육태도를 비판하고,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양육하자는 가치가 꾸준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과잉보호하거나 무분별하게 애정을 쏟으며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잉보호, 무분별한 사랑, '내가 다 해줄게'하는 식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기적이고 물질지향주의, 출세지향주의적인 양육태도와도 맞물려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들의 자녀들이 성공 이외의 것들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태도는 "인성은 어찌됐건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부모들은 종이요 아이들은 상전으로 군림했다. 시간낭비라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도록 한 비교육적 행위"(Donga daily newspaper, 1996.5.1.)라며 비판하고, 성품교육을 강조하는 자녀 양육태도를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과잉보호나 출세지향에 대한 가치를 비판하지만, 자녀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평생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자녀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라"(Donga daily newspaper, 2012.5.8.)면서 부모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라는 양육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를 소유하려 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2000년대 이후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헌신을 칭송하는 경향이 과잉보호나 출세지향 양육가치의 경향과 함께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를 표창, 수상하는 기사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2대 독자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도 제치고 자신의 폐를 이식해준 어머니에게 '장한 어머니' 표창을 준 사실을 전달한 기사(Chosun daily newspaper, 1970.5.8.)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로 키운 어머니들이 '훌륭한 어머니'상을 수상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Donga daily newspaper, 1984.5.7.) 등이 있었다. 이후에도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들 이야기나 ‘장한 아버지’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사화하고 있으며, 헌신적인 어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격려한다는 내용의 기사(Chosun daily newspaper, 2010.5.5.)도 보인다. 표창이나 수상을 한다는 것은 그 모습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는 의미이다. 즉 자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는 40년에 걸쳐 변하지 않고 강조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경향은 대체로 ‘어머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와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은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를 넘어 부모 모두에게 이런 경향이 퍼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자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적 사랑이라는 가치 자체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자녀 과잉보호나 출세를 지향하는 양육태도는 시대에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부모의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녀가 올바른 성품을 갖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지향하는 경향도 나타나지만, 과잉보호나 출세지향의 태도에 비해 등장 시기가 늦고, 기사 내용의 양도 더 적어 아직까지 성품 지향의 양육태도가 지배적인 가치라고는 보기 어렵다.

자녀 양육태도와 달리 자녀 출산 및 입양 선택에 대한 가치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및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관련 기사는 2006년에 급증하였는데, 전에 없던 저출산에 대한 기사가 2006년 가족 관련 기사 전체 빈도 9건 중 6건을 차지하였다. 기사는 자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인적 가치와 관련된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다음과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및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구 위기는 결국 여성들이 이 사회 상황에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 …… “아이를 가졌다고, 혹은 아이 낳았다고 직장에서 눈 흘김을 받는 사회, 받는 기업에서, 그런 여성을 寶物로 받드는 사회와 직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그 일에 정부가 앞장을 서야 한다.” (Chosun daily newspaper, 2006.5.9.)

이때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가족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 출산과 관련한 가치에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양의 경우는 자녀관보다는 가족관에서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구조의 다양성 측면이 아닌 자녀 양육 측면에서 입양을 선택하고 입양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신문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효 가치관의 양상 및 변화 양상

효 가치관 관련 기사의 내용은 크게 효도 의식과 효도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부모 부양, 봉양, 공경 등 효도 의식과 관련한 기사는 분석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들이 다수이긴 하나 이들과 자녀세대와의 교류단절은 노인들을 더욱 고독하게 만든다.”고 보는 기사(Donga daily newspaper, 1990.5.10.)나 “한국인의 생활지도 원리이며 절대적 가치였던 효가 요즘은 경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 기사(Chosun daily newspaper, 2004.5.3.) 등은 자녀들의 효 가치관이 이전에 비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비판과 함께 효도를 강조하는 가치가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효행자 수상, 훈장이나 ‘효부비’ 수여 등이 두드러졌다. 즉 효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헌신적인 효를 칭송하고 다시 강화하고자 하며 가족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의 가족가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효도 방식에 있어서는 효에 대한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가치가 1970년대부터 발견되며, 1980년대에 들어서 “노부모에게 깊은 관심을 갖되 같은 경험을 가진 노인들끼리 어울리고 자신들의 할일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대의 효’”(Donga daily newspaper, 1986.5.8.)라고 하는 등 현대적 부양 방식을 인정하자는 가치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이라고는 하나, 돈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효도다. ……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란다.”(Chosun daily newspaper, 1996.5.11.)고 언급한 기사와 같이 물질적인 효행을 비판하고 진심을 담은 효행을 지향하는 의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에 물질적인 효행이 진정한 효행인양 자행되고 있었던 현실을 유추하게 한다.

이렇듯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효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던 효도 의식의 경향과 달리 효도 방식에 대한 가치는 조금씩 강조의 초점이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효도 방식의 변화가 효의 의미와 중요성을 약화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효 가치관은 유교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 성역할관의 양상 및 변화 양상

성역할관 관련 기사의 내용은 크게 성역할 분업과 모성 이데올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970년에 보도된 기사 <한국의 좋은 어머니像>(Chosun daily newspaper, 1970.5.3.)에서는 좋은 어머니상(像)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여주었다. 선정기준은 '자녀 교육+남편 내조+사회활동'으로 정리되지만, 여기에서의 사회활동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경제활동이나 자아실현을 하는 등의 현대적 의미의 사회활동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도 유급노동만큼 중요한 역할로 인정하자는 것이지 이분법적 성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여성=가사노동, 남성=유급노동'이라는 역할 구분을 인정하고 분리된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태도로, 이분법적 성역할을 견고히 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구분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육체노동이고 창의력 없는 일이라고 낮게 평가했던 여성역할(家事)에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며, 필요와 형편에 따라 남편 아이들이 함께 나누어하도록 해야 하고, 주부 자신은…… 주부의 창의적 역할을 바탕으로 가족모두가 상호존중과 사랑 속에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 (Chosun daily newspaper, 1978.5.11.)

여성의 가사노동과 사회활동 양립을 인정하는 가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뚜렷해졌다. 그러나 “현대의 신사임당이란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면서도 배울 수 있는 한 많이 배워 사회적으로도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Chosun daily newspaper, 1988.5.13.)고 하는 기사들과 같이, 아직까지 여성의 자기개발 노력을 인정하고 사회 진출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이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양상이었다.

즉 가정에서의 성역할이 뿌리째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인정하며 여성의 역할 범위를 넓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사활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태도가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분법적인 성역할과 완전히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는 일하는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나의 두 아이를 생각하면 직장을 중단해야 하겠다는 생각…….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주부라는 생각”(Chosun daily newspaper, 1990.5.17.)을 불러일으키는 등 오히려 여성들에게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적인 성역할관을 지향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다. 아래 기사에는 가부장적 성역할관에서 벗어나 '여성도 일하고 공부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다른 가족 성원과 나누어서 하면 된다'는 가치관이 드러난다.

“여자라고 집에만 있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 …… “맞벌이건 공부하는 엄마건 간에 가사분담이 필요할 때는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가족들이 분담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지혜를 발휘하라.” (Donga daily newspaper, 2006.5.12.)

이와 달리 “중년 남성들의 질문이 주로 공적이고 거시적인 것을 향해 있다면, 여성들의 질문은 대개 가족의 틀에 갇혀 있다. …… 이렇게 지적, 사회적 활동의 장이 활짝 열렸는데도 여성의 욕망은 여전히 낡은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있다.”(Donga daily newspaper, 2012.5.8.)고 언급한 기사에서는 현대 여성들이 여전히 남편과 아이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사회의 가부장제 잔존의 탓이 아닌 여성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며, 여성이 스스로 가족 안에서의 역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곧 평등적인 성역할을 지향하지만, 지향 가치와는 별개로 아직까지 여성의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사회적으로든 개인 내적으로든 가부장적인 성역할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예측하게 한다.

남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변화 양상도 여성의 성역할 변화 경향과 연관되어 나타났다.

“아빠의 소외는 현대 한국이 지닌 社會病理 가운데 하나며 그의 가정에의 복귀는 어린이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나 또 가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Chosun daily newspaper, 1974.5.5.)이라고 언급한 기사와 같이 1970년대에도 아버지의 가정으로의 복귀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가정'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성들도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더 자신 있게 찾을 수 있게 돼요.”(Chosun daily newspaper, 1986.5.17.), “엄마가 자녀에게 중요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아빠도 자녀에게 아빠만의 독특한 의미로 중요하다. 아빠들이여. 양육에 참여하자.”(Donga daily newspaper, 1990.5.9.)하는 등과 같이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확대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이는 시기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가부장적인

성역할 분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치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이어져, 여성의 성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바로 뒤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아빠’의 범위를 넘어 ‘행복한 남편되기’를 겨냥”하자는 기사(Chosun daily newspaper, 2002.5.3.)와 같이 남성의 역할이 자녀 양육 참여 이외의 일로 표현된 기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성역할에 대한 가치가 유교적·가부장적인 양상을 비판하고 평등한 역할 분담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성들을 가사노동의 책임자로 느끼고, 남성들의 가족 내 역할은 자녀 양육 참여로만 나타나는 모습 등은 이분법적 성역할의 잔존을 보여준다.

한편 아버지들의 사회활동과 자녀 양육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려는 데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회사 일로 심신은 약해지는데 가정도 녹록치 않다. 어느 집 자녀들이 휴대전화에 아버지를 ‘우리 집 끈대’라고 입력해 두었다는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저 폭 쉬고 싶은 주말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소통을 시도하려 애쓴다. (Donga daily newspaper, 2012.5.8.)

이러한 양상은 남성의 가정으로의 복귀가 자녀 양육 역할에 한정되면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부담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이중부담, 이를 테면 ‘일-양육 양립’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최근의 성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한편 모성이데올로기는 여성이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근거로 여성의 정체성을 어머니로 규정하고,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수행하도록 성역할을 고정하는 사회적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S. Jo, H. Chung, & J. Lee, 2015).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던 자녀에의 헌신 가치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어머니는 한없는 모성애를 갖고 사랑을 힘껏 주고받아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낳는 책임은 물론 기르는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Donga daily newspaper, 1970.5.8.), “모성애는 죽어서도 자식을 성행운을 좌우하리만큼 강력한 것이다. 진정한 모성원리로 세상 어머니들을 지수화하여 잃어가는 어머니를 되찾는 부메랑이 됐으면.”(Chosun daily newspaper, 2004.5.8.)하고 보도한 기사와 같이 1970년대부터 2004년 중반까지 꾸준히 등장하였다.

모성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여성의 성역할에의 가치 변화와 맞물린다. 즉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던

자녀에의 헌신 가치 변화는 여성의 성역할 가치 변화 경향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자녀관 관련 기사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주로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을 높은 가치로 언급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헌신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모성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가족 안에서도 특히 가족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가치, 즉 가족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과 그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사회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전달되는지, 나타나는 가족가치관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가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5월 ‘가정의 달’에 보도되는 신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전반적 양상을 확인하고자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를 빈도분석한 결과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가족관과 자녀관 관련 기사 점유율의 합은 63.2%로, 수집된 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역할관, 효 가치관 순으로 자주 나타났고, 결혼관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신문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및 양상을 선정하여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문이 가족가치관 중에서 특히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가치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가족관과 자녀관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결혼관 관련 기사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은 결혼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가족가치관 중에서 가장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의 빈도가 급증한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1994년에는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 지정이, 2006년에는 저출산과 국제결혼 급증이라는 사회 현상 출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제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사회상 전달 매체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시대에 부합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는 2004년에 급증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족을 강조하는 기사가 대다수였다. 즉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은 그

이후 신문이 가족의 화목이나 건강한 가족을 중요한 사회 사안으로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의 빈도 상승은 UN에서 세계 가정의 해 지정의 영향을 받았다. UN은 가족을 미래의 자원으로 보고, '사회의 심장부인 가족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 세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H. Byun et al., 1994).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족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자 세계 가정의 해를 제정하였다는 것이다(Research of Women and Korean Society, 1995). UN은 가족이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의 유형, 남녀 간 평등, 세대 간 평등을 지지하고, 그렇게 기능하기 위해 사회가 지원하도록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권고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에 따라 '평등한 부부'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등 가족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였고, 학계에서도 한국 가정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관심을 기울였다(Research of Women and Korean Society, 1995).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가족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보다 평등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 양상과 가치의 전달매체인 신문에서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입양가족, 다문화가족의 모습을 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신문이 그와 관련되는 가족가치를 주요 사안으로 선정하여 전달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Statistics Korea(2015)에 따르면 2005년 합계출산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제결혼 혼인 건수도 2005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2006년의 가족가치관 관련 기사의 빈도 상승은 저출산과 국제결혼 급증이라는 사회 현상의 영향으로, 극심한 저출산율 및 국제결혼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세계 가정의 해 지정, 저출산과 국제결혼 급증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신문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신문이 가족가치관 변화 양상을 더 많이 포착하고 전달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가족가치관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이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삶의 질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가족법(H. Song, M. Sung, M. Chin, & S. Lee, 2005)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가족학계가 제시하는 '건강가정' 개념이 남성과 여성이 부부를 이뤄 생물학적 유전자가 전달된 자녀를 양육하는 전형적인 핵가족과 남성이 수단적 역할을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유교적인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한다고 비판하고, 그러한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족형태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S. Cha, 2004; J. Lee, 2004; Y. Lee, 2011; H. Yoon, 2004). 그러나 여러 연구(M. Jung, 2003; H. Song et al., 2005)에서 드러나듯, 건강가정은 가족형태나 구조가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가족을 건강과 비건강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변화에 따른 지원 요구를 인식하고, 가족의 질적 향상과 나아가 개인·가족·사회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라는 전형적인 형태의 가족을 지지하며 그렇지 못한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비판은 건강가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어긋난 비판이다.

그런데 분석대상이 된 두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가치의 변화 양상은 그 어긋난 비판을 뒷받침하는 경향을 띠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신문이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가치관 하위범주별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관은 2000년대 이후 서서히 변화하는 양상이 포착되지만, 가족중심주의가 '가족이 사회의 근간이자 중심'이라는 가치에 오히려 '그러므로 화목해야 한다'는 식의 '화목'과 '건강성'의 가치가 더해진 논조가 보인다. 결혼관 역시 결혼 혹은 배우자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가치는 전무하고, 출산이나 입양 등 자녀 양육 선택의 가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도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사는' 부부를 지향하는 가치가 나타난다. 자녀관에서도 부모 중 어머니에게만 양육을 강조하는가 혹은 자녀 출세와 성품 중 어느 개념에 중심을 두는가의 차이일 뿐,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 노력, 헌신이 부모들에게 변함없이 큰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 효 가치관에서도 분거 부양이나 경제적 부양 등 효도 방식의 변화는 받아들여지지만, 노부모 부양, 봉양, 공경 등 효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

의 역할을 이분화한 성역할관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성이 가사 및 돌봄의 주 책임자라는 의식은 여전하고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는 자녀 양육에 한정된다.

전반적으로 유교적·가부장인 가족가치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전의 가족가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양상으로서의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현대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가족의 변화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지체된다는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의 논의(K. Eun, 2006;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993; Research of Women and Korean Society, 1995)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가족의 변화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지체될 경우 유교적·가부장 전통의 가족가치관 지속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족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다양한 가족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의 가족가치를 기준으로 가족의 행동을 평가함으로써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치부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연구의 결과 신문에서 다양한 가족가치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문이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렇게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 변화의 폭이 가족가치관 하위범주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신문에서 전달하는 사회의 가족가치가 가족의 실제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실제로 미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이 전달하는 가족가치관 양상이 실제하는 가족의 모습과 괴리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현실의 관계에 대해 현실반영론과 현실구성론이 대치된다. 현실반영론은 대중매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마치 거울과 같다고 보는 반면, 현실구성론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현실은 여러 요인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본다(J. Kim, 2001; K. Kim, 2011). 현실구성론을 지지하는 연구(S. Ha, & M. Lee, 2012; K. Kim, 2011; M. Lee, & S. Kim, 2006; H. Shim, 2012; G. Tuchman, 1972 as cited in J. Kim, 2001)는 상당수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매체가 객관적인 사회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치관이나 의도에 따라 일정한 해석의 틀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현실을 일정한 틀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본다(J. Kim, 2001).

또한 가족가치와 관련한 문헌들(K. Kim et al., 2009;

S. Shin, 1998)은 가족가치가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공고히 되면서 하나의 ‘관념’으로 전수되고, 이는 ‘실제’ 가족의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와 매체의 현실구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신문이라는 대중매체가 사회가 가족에 대해 가지는 ‘관념’을 전달하고 강화하는 기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실제로 미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전달하는 가족가치관 양상이 실제하는 가족의 모습과 괴리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가족가치관의 실체가 그러한 것인지 사회가 그러한 가족가치를 선택하여 전달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성역할관 관련 기사가 최근에 올수록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상을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어 기존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족’으로 이분화된 성역할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역할관의 변화 양상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즉 부성(父性)만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자녀 이외의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에서의 역할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기존에 어머니가 도맡아야 한다고 보았던 자녀 양육에 대해 점차 아버지의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성역할관과 자녀관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상 추구는 어머니의 역할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경제활동으로 힘든 아내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남성의 가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관점(K. Lee, & M. Yun, 2001)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혹은 모성이데올로기의 약화 등이 아버지가 가정생활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역할관과 자녀관의 중복 경향은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논의(S. Na, 2014)와 일치한다.

이러한 양상은 “생계책임의 공유를 주장하거나 가정일에 적극 참여하는 남성이 출현”(Research of Women and Korea Society, 1995)하고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남성이 적극 참여하는 “가정일”이란 자녀 양육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문에서 남성이 가족 안에서 도구적 역할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수행역할을 보면 대체로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신문에서 전달하는 남성의 부성 강조는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이 남성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남성들이 아직 주 생계부양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

데 남성들에게 돌봄의 역할까지 강요하여 '슈퍼맨'이 되라고 압박할 수 있다. 실제로 Donga daily newspaper(2012.5.8.)의 기사 <40대 직장인이 겪는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에서는 회사 생활만으로도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아버지들의 실상을 보여주어 남성들의 이중부담을 가늠케 한다.

한 사람이 가사노동을 도맡고 다른 한 사람이 유급노동을 책임지는 형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성이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고정된 성역할 분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의 인식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가정을 주로 돌보는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와 상관없이, 누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문에서 전달하는 성역할은 여성에게 가정생활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남성에게 부성 실현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가정생활 참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및 논의는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과 그 변화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5월을 분석범위로 삼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로 여겨져 신문에서 5월에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평상시보다 강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혼이나 재혼 등 새로운 양상의 가족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신문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양상을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보다 많은 의미를 산출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하지 못했다.

셋째, 어버이날은 1973년에 제정되었지만 입양의 날은 2006년에 제정된 것과 같이 기념일 마다 제정 이후 했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분석범위를 5월 '가정의 달'에 국한하지 말고 한 해 전체를 분석범위로 삼아 신문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보다 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이 나타나는 당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기념일의 제정연도에 차이가 있어 현재 시점에

서 각 기념일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정된 이후의 시간에 따라 범위를 구분하거나, 제정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기념일만을 대상으로 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념일 제정 이후의 시간차를 좁혀 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djust wedding procedure. (1988.5.7.). *Donga daily newspaper*.
- Bang, H. C., (2014.5.17.). Overseas business trip with family. *Chosun daily newspaper*.
- Byun, H. S., Won, Y. A., Choi, E. Y., Lee, C. H., & Hwang, T. H. (1994). Open society and famil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5(-), 201-245.
- 'Birthrate 1.08', it is emergency state of nation. (2006.5.9.). *Chosun daily newspaper*.
- Cha, S. J. (2004). A study on Healthy Family Act. *Research of Family Law*, 18(2), 379-400.
- Chang, J. K. (2005). A primary study on preference of fertility policies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marriage and having a child.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11), 165-183.
- Changing urban family. (1974.5.11.). *Donga daily newspaper*.
- Cho, M. S., & Oh, S. J. (1999). Family relation variabl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family valu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1), 67-89.
- Choi, B. Y., (2008.5.21.). Why the single don't get married even they have money to blow?. *Chosun daily newspaper*.
- Choi, H. M., (2004.5.17.). Mr. and Mrs. Cho who is lasting marriage for 68 years get the 'longevity couple' price at the Couple's Day. *Chosun daily newspaper*.
- Choi, J. S. (1964). Traditional values in Korean family.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7(2), 19-47.
- Choi, J. So. (1982). *Research of Korean family*. Seoul: Iljisa Publishing.
- Chun, J. G., (2004.5.3.). A devoted son is a worst husband?. *Chosun daily newspaper*.
- Chung, M. R., & Chang, Y. H. (2007).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the values of marriage, having child & job of university students and it's variables.

- Research of Education*, 41(-7), 1-17.
- children is treasure of country-raise them strongly. (1970.5.5.). *Chosun daily newspaper*.
- Does paternal authority weak?. (1980.5.13.). *Donga daily newspaper*.
- Don't make children lonely at Children's Day. (1974.5.5.). *Chosun daily newspaper*.
- Dump child because of self-indulgence. (1970.5.8.), *Donga daily newspaper*.
- Eun, K. S. (2006).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values: Focusing on sex and generational difference. *Family and Culture*, 18(3), 1-31.
- "Fathers should come back to 「home」 ". (1986.5.17.). *Chosun daily newspaper*.
- Filial piety-realities of today. (1986.5.8.). *Donga daily newspaper*.
- Give and take appropriately. (1984.5.1.). *Donga daily newspaper*.
- 「Good wife and wise mother」 who seeks to self development. (1988.5.13.). *Chosun daily newspaper*.
- "Grandma is a good morals teacher". (1982.5.1.). *Chosun daily newspaper*.
- Ha, S. H., & Lee, M. K. (2012). A news frame analysis by the South Korean press on the livelihoods of a North Korea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58(-), 222-241.
- Han, S. K. (1996). A study of collegians view of family value.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3(1), 107-139.
- Home education at IMF ages. (1998.5.13.). *Chosun daily newspaper*.
- Hong, S. J. (1971). *A study of Korean value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How solve the conflict between mother in law and daughter in law. (1988.5.9.). *Donga daily newspaper*.
- Hwang, D. J., (2010.5.5.). "Maternal instinct can make them overcome mixed-blood or disability". *Chosun daily newspaper*.
- Hwang, S. M., (2012.5.8.).The forties's differences about communication with children. *Donga daily newspaper*.
- Jung, M. J. (2003). Family policy for enactment of Healthy Family Ac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9), 163-177.
- Jung, O. J., (2004.5.10.). 'Family month', is it enough?. *Donga daily newspaper*.
- Kang, S. J., Kim, D. H., Oh, K. A., Lee, E. S., & Jung, C. H. (1991). A study on the values of child of the Korean mother and its changing. *Studies of Home Management*, 10(-), 39-58.
- Kaid, L. L., & Wadsworth, A. J. (1989). Content analysis. In P. Emmert & L. L. Barker, (Eds.), *Measurement of communication behavior* (197-217). New York: Longman Publishing.
- Kim, G. W. (1995). The Dynamic of family relationship and problem consciousness: Awareness and values of family. *Family and Culture*, 7(-), 213-255.
- Kim, H. H., Kim, T. H. (2008). The family value changes and educational enforcement in the low fertility perio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 21-35.
- Kim, H. J., (2008.5.21.). "Endless hardships make grow our love". *Donga daily newspaper*.
- Kim, H. K., Park, C. M., & Nakajima, K.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or the elderly: Comparison analysis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grou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0(1), 170-194.
- Kim, H. Y. (2005).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family consciousness. *Family and Culture*, 17(1), 115-146.
- Kim, I. M., & Kim, M. C. (1989). A comparative study on value orientation about family lif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s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7(1), 59-78.
- Kim, I. W. (2008). *A study on the old aged-related features tendency in Korean daily newspa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J. H. (2001). Discussion about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of journal: Media report a dead student in the demonstration and police offic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4), 35-75.
- Kim, J. Y. (2012). *The impact of the parents' family value orientation and family strengths toward the youth family value ori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Kim, K. B., Jun, K. G., Kim, Y. G., Park, Y. T., Shin, G. S., Kim, S. H., Jung, H. B., Kwon, S. H., Jung, C. G., & Han, O. J. (2009). *About the new family: Big bang of the family*. Paju: Seohaemunjip Publishing.
- Kim, K. J.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ine culture in Korea. -Based on content analysis on wine in the major domestic newspapers-*. Unpublished doc-

- 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S. (1998a).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0), 145-160.
- Kim, K. S. (1998b). Parent - youth similarities in family value orientation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3(2), 43-65.
- Kim, M. C., & Ahn, S. Y. (1996). Comparative analysis on filial-piety between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coup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6), 113-125.
- Kim, M. R., (2006.5.31.). Divorce getting 'cool'. *Chosun daily newspaper*.
- Kim, N. Y., Lee, J. H., Kim, E. J., & Kim, K. S. (2010).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values and childbirth* (Government Publication No. 2010-30-4).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T. H. (2005). Personal value changes and low fertility. *Health·Welfare Policy forum*, 102(-), 16-24.
- Kim, T. H., Yu, J. Y., & Kim, H. H. (2012). A study on the marriage and child valu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5(1), 1-22.
- Kim, Y. D., (2008.5.7.). "Mom, I'm sorry..." why this words are so hard?. *Chosun daily newspaper*.
- Kim, Y. H., (2006.5.8.). Get out of the 'blood family' obsession. *Donga daily newspaper*.
-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993). *Family science*. Seoul: Hawoo Publishing.
- Lee, D. W. (1987). The study of changing family values.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Culture*, 52(-), 229-256.
- Lee, E. K. (1999). A study of college students' familism and awareness of parent-suppor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 45-65.
- Lee, J. K. (2004). Is the Korean family in crisis?: Feminist critics on 'family strength' discourse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0(1), 229-244.
- Lee, J. S. (2006). *Study on adolescent recognition of family values, marriage and sexual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Lee, K. T., (2004.5.3.). Divorce of elderly. *Chosun daily newspaper*.
- Lee, K. T., (2004.5.8.). Status of mother. *Chosun daily newspaper*.
- Lee, K. Y., & Yun, M. R. (2001).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as a buffer in the case of economic crisis - Based on newspapers during the IMF regim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3). 73-87.
- Lee, M. K., & Kim, S. J. (2006). A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 (Hoju) system - Examining three major Korean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4, 132-160.
- Lee, S. M. (2014). Korean families between familism and individualization: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familism and gender of the latent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Family and Culture*, 26(3), 1-36.
- Lee, S. S., Jung, Y. S., Kim, H. K., Choi, E. Y., Park, S. K., Cho, N. H., Shin, I. C., Do, S. R., Cho, S. K., & Kang, J. H. (2005).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Government Publication No. 2005-30(1)).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Y. A. (2011). Reconsidering about family in 'Family month'. *Openjeonbuk*, 139(-), 58-61.
- Let's make children working. (1982.5.19.). *Chosun daily newspaper*.
- Ministry of the Interior. (2014). *The rules of several anniversaries*.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0%81%EC%A2%85%20%EA%B8%B0%EB%85%90%EC%9D%B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
- Moon, D. S., (1996.5.11.). Family month. *Chosun daily newspaper*.
- Na, S. E. (2014). Gender hierarchy in fathers' care and the construction of neo-instrumental fatherhood: Focusing on the middle-class and dual-earner families. *Family and Culture*, 26(1), 1-39.
- Nam, S. J. (2005). *Analysis on dance articles in Korean major newspap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Nonsense. (1990.5.9.). *Donga daily newspaper*.
- Ok, S. W. (1975). A study of the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in family relationships. *Family and Environment*

- Research*, 13(4), 439-454.
- Ok, S. W. (1989). A study of Korean's familism values in modern soc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Ok, S. W., Sung, M. A., & Shin, K. Y. (2000).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in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9), 1-17.
- Park, J. S. (1984). A study on family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2(3), 129-148.
- Park, K. A., (2006.5.19.). 'Family bond' is up to parents. *Donga daily newspaper*.
- Park, S. O., Yang, Y. S., & Ahn, S. H. (1997).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and mate sele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6(-), 33-57.
- Park, W. J., (2006.5.12.). Mom is studying. *Donga daily newspaper*.
- Perplexed 「Good parents behavior rules」 -reflect children education calmly. (1996.5.1.). *Donga daily newspaper*.
- Reconsidering 「family」. (1994.5.7.). *Chosun daily newspaper*.
- Research of Women and Korean Society. (1995). *Today and tomorrow of Korean family culture*. Seoul: Social and Culture Institute.
- Riffe, D., Lacy, S., & Fico, F. (2001). *Methodology of media content analysis*. Bae, H. S., (Trans.), Seoul: Communicationbooks Publishing.
- Shim, H. S. (2012). *Conservative frames vs. progressive frames of Korean journalism: A comparative content analysis of the editorials on Korea-USA FTA issues on Chosun-Ilbo and Hankyore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Shin, N. Y. (2006). *A study on the trend of news on family diversity -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of the ChosunIlbo and the HankyorehDaily News in recent 3 year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Shin, S. J. (1998). *Tradition of Korean familism and its tran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Y. K., (2006.5.11.). "The shamelessness of middle age head of household is innocence". *Chosun daily newspaper*.
- Shining maternal love. (1984.5.7.). *Donga daily newspaper*.
- Song, D. Y. (2004). The consciousness of family caregiving among women and eldercar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19(-), 207-233.
- Song, H. R., Sung, M. A., Chin, M. J., & Lee, S. M. (2005). A study on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healthy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6), 179-190.
- Som, J. M., (2002.5.3.). "Open festival for loving daughter or son equally". *Chosun daily newspaper*.
- Statistics Korea. (2014). *2014 Time Use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4/index.board?bmode=read&aSeq=346875.
- Statistics Korea. (2015). *2014 birth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7963.
- Suh, S. H. (2003). A study of the meaning and the change of familism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4), 93-101.
- The aged who can go nowhere. (1990.5.10.). *Donga daily newspaper*.
- The children at IMF ages. (1998.5.1.). *Donga daily newspaper*.
- The good mother who was cut her own bone for her son. (1970.5.8.). *Chosun daily newspaper*.
- The happiness in laboratory. (1990.5.17.). *Chosun daily newspaper*.
- The image of Korea's good mother. (1970.5.3.). *Chosun daily newspaper*.
- "The important thing is bond not blood". (1996.5.19.). *Donga daily newspaper*.
- The requirement for healthy family. (1996.5.11.). *Chosun daily newspaper*.
- There is 'family' but not 'home'. (1990.5.7.). *Chosun daily newspaper*.
- Today's the aged. (1994.5.8.). *Donga daily newspaper*.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Wandering housekeepers. (1978.5.11.). *Chosun daily newspaper*.
- Won, S. Y. (2014). Changes i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y: Focusing on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1996 and 2010.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3), 141-172.

- Yang, M. S. (1996).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2), 167-181.
- Yoon, H. S. (2004).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changes in family and directions of family welfare polic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4(-), 263-293.
- You, S. H., Sung, J. M., & Kim, T. D. (2006). A study on the value of familism of the residence of apartments - With a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rental and non-rental apartment residents -.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3(3), 129-151.

Received: January 15. 2016

Revised: March 27. 2016

Accepted: April 8. 2016